

북미정상회담 성공기원을 바라는 광주YMCA 입장문

70년 분단과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만남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세기의 회담’ 이라 불리는 ‘북미간 첫 정상회담’ 이 내일로 다가와 있다. 열강의 각축지에서 냉전의 마지막 화약고로 70년 동안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온 한반도에 마침내 ‘봄’ 소식에 대한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북미 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기존의 양국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고, 전격적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러기에 8,000만 남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은 지난 70년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비극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우리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로드맵이 큰 틀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선행조치로 ‘종전선언’ 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임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한번이 아닌 양 정상 of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되길 희망한다. 이미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교감이 이루어진 만큼 각론의 차이로 인해 회담이 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70년 이상을 대결 속에서 지내왔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극도로 불신해 왔던 당사자들이 한 번에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대원칙과 실천방안에 합의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갈망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후 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들이 당사국들의 비준은 물론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의 승인을 통해 완전한 이행이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6월 11일

광주YMCA